

## 江原道支部編

강원도는 상고시대 에(穢) 또는 백(貊)이라는 작은 부락국가였다. 그 후 고구려, 신라, 고려의 영역 내에 있다가 고려 성종왕시(995년)에 이르러 지방 행정구역을 10개도로 분할하면서 현 함경북도과 강원도 일대가 삭방도(朔方道)에 편입 되었다.

원종왕 4년(1262년)에는 현 강릉 일대와 춘천 철원 등지를 합하여 교주도라 부를 때도 있었다. 이씨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 4년(1395년)에 강원도라 개칭하였다. 이조말엽(1895년)도는 폐하고 춘천과 강릉에 관찰부를 두고 관영하다 이를 폐하고 13도를 두게 되자 다시 강원도로 부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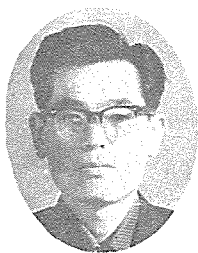
현재의 춘천시 전경



## 江原道支部 任員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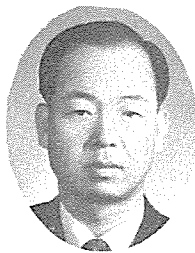
支部長 孫駿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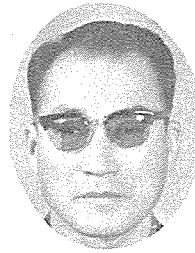
總務幹事 趙貞鎬



幹事 黃基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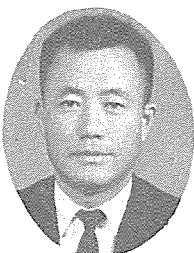
幹事 全寅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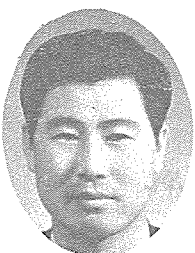
監事 李實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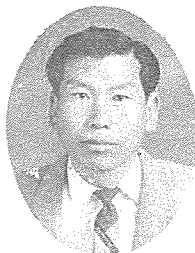
監事 陳達壽



東草分所長 朴鍾三



三陟分所長 金吉昌



寧越分所長 朴容仁

### 江原道支部 沿革

1. 1965年11月13日 春川市 中央路1街36에서 총 재직 회원 13명으로 支部 創立總會를 開催 初代 支部長 趙奎植.
2. 1966年8月3日 第1回 支部定期總會開催 65年度豫算決算 및 監事 代議員 改選.
3. 1966年11月21日 66年度 第1回 臨時總會開催 支部 運營規定 심의 및 67年度 歲入歲出豫算 승인.
4. 1967年10月21日 第2回 定期總會開催 2代 支部任員 改選 및 分所長 選出. 支部長 孫駿燮, 總務幹事 趙奎植 幹事 洪台杓, 朴鍾三, 監事 元鎬昌, 梁柱鎬 原州分所長 李鍾元, 江陵分所長 金寅極, 東草分所長 朴鍾三 三陟分所長 朴載國
5. 1968年2月24日 臨時總會開催 67年度豫算決算 및 68年度 追加更定豫算等 심의.
6. 1968年5月11日 緊急臨時總會開催 任員補選 및 代議員選出.
7. 1968年12月14日 第3回 定期總會開催. 1969年度 歲入歲出豫算案 심의.

8. 1969年3月1日 서울시지부와 姊妹結緣 道支部 事務室에서 서울시支部長 및 本部理事 參席下에 姊妹結緣式舉行.
9. 1969年3月30日 臨時總會開催(原州에서) 68年度 豫算決算 및 69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 심의.
10. 1969年12月10日 第4回 定期總會開催. 70年度 歲入歲出豫算案 심의.  
3代 支部 任員改選 및 分所長 選出  
支部長 孫駿燮(재당선), 總務幹事 趙貞鎬, 幹事 黃基禎 全寅極, 監事 李實永, 陳達壽, 原州分所長 沈命澤, 江陵分所長 全寅極, 東草分所長 朴鍾三, 三陟分所長 金吉昌 寧越分所長 朴容仁
11. 1970年4月19日 臨時 總會開催. 69年度 豫算決算 및 70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 심의.
12. 1970年7月15日 道支部 事務室 移轉獨立. 春川市 中央路1街 146에서 朝陽洞98로 移轉 電話 2442번.
13. 1970年11月25日 第5回 定期總會開催 71年度 歲入歲出豫算案 및 70年度 第2回 追更豫算 심의. 監事 및 代議員 改選, 監事 李實永, 陳達壽(유임), 代議員 趙奎植, 李相哲, 金吉昌, 黃在成 이상 現在에 至함.

春川市는 옛날 매국(倭國)의 古都로서 新羅 성덕여왕 6년(서기637년)에 군주를 두어 통치하였으며 그 이름을 우수주(牛首州)라 불렀다. 문무왕 13년(서기637년)우수주를 수약주(首若州 一名 鳥斤乃 또는 首次若)로 개칭하고 다시 경덕왕 때에 삭주(朔州)로 개칭하였다가 후에 광해주(光海州)로 고쳤다.

고려 태조 23년(서기940년) 춘주(春州)로 개칭하였다가 성종 14년(서기994년)에는 단련사(團鍊使)를 두어 안변부(安邊附)에 속하게 하였으나 안변과의 교통이 극히 불편하므로 신종 6년(서기1202년) 최충현의 진의로 안양도호부(安陽都護附)를 두어 안변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조 태종13년(서기1412년)에 현재이름인 춘성군으로 개칭하고 역시 도호부를 두었으며 인조5년(서기1627년)에 도호부를 없애고 방어사 또는 포도사를 두었다가 경조23년(서기 1746년) 방어사사철원으로 옮겨짐에 따라 부사겸 좌영을 두었으며 고종25년(서기1887년)에 춘천유수(留守) 민 두호(閔斗鎬)로 하여금 왕명에 의하여 현 강원도청자리에 이궁(離宮)을 건조케 하여 위급시에 피난처로 정하였다. 고종 32년(서기1894년)에 원주감영을 없애고 동시에 도부사(道府使)를 춘천으로 옮겼다가 그 후 관찰부로 고쳤고 융희 4년(서기1910년) 한일합병후 관찰부를 도청으로 개칭하므로써 춘천은 강원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1949년 8월15일 지방자치제 실시의 각광을 받아 춘천시는 강원도청 소재지로서 약진을 거듭하던중 불행이도 1950년 6월25일 북괴의 침공으로 시가는 전혀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화 되었다.

그러나 1951년 6월 수복한 이래 전화(戰火)로 재만남은 폐허 위에 향토재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보람이 있어 오늘과 같은 현대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1965년 2월 준공을 본 춘천댐과 1967년에 준공된 의암댐 그리고 1972년 완공될 한국 최대의 소양강 다목적 댐으로 인해 춘천시가는 3면이 아름다운 인공 호수로 쌓여 전국 유일의 호반관광산업도시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강릉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10리쯤 가면 돌레가 8km나 되며 물이 맑아 거울과 같은 호수가 펼쳐져 있다. 이 호수가 경포호이며 일명 경호 군자호라고도 한다. 경포호 서북쪽 기슭에 바로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가 우뚝 솟아 호수를 굽어보고 있다. 경포대는 고려 충숙왕 13년(서기 1320년)에 박 숙정이라는 분이 시무봉에 세웠다. 그 후 이조 중종 3년(서기 1508년)에 강릉부사 한급이 현위치에 옮겨 지었던 것을 계속 수리하고 고쳐 지금에 이르렀다. 지붕의 기와는 1522년 쫓의 것이며 옛 시인들이 경포대를 두고 누구나 한번씩 그 아름다움을 시로 썼다. 숙종대왕도 이곳을 둘러 시를 썼고, 대현 이 율곡 선생이 10살 때 쓴 시와 송강 정철 선생이 관동팔경을 읊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한 시는 너무도 유명하다.

「물가의 난초와 언덕의 잡초가 서낙 동녘을 들렀으니 십리에 뻗친 물 가운데 비친다. 아침에 해 솟고 저녁 그늘에 지는 천만가지 형상은 솔솔부는 바람에 흥이 무궁하다.」 이처럼 숙종대왕은 경포대의 자연에 심취했었다.

지금은 경포호 동쪽에 경포대 관광 호텔이 높아 솟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을 맞고 있다. 경포대에서 1km정도 동쪽으로 가면 경포호와 낮은 모래 언덕을 사이에 두고 흰모래 맑은 물을 자랑하는 경포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

옛날엔 경포호의 어부들이 유명해졌지만 지금은 소풍객들의 노릿배로 호수를 메운다. 또한 기차가 경포대까지 들어와 저녁 노을과 함께 호수를 끼고 달리는 기적소리는 조용한 호수를 더욱 아름답게 수 놓는다.

강릉시는 71년도의 시정 기본 목표로 「규모있고 움직임 있는 관광도시건설」이란 표제를 내걸고 이곳 경포호에 민간자본 1억 7천 5백만원을 투자. 호텔 방가로등 20여채를 신축하여 경포지구를 찾아 관광객으로 하여금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 한다.

맑은 호수와 푸른 동해바다를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경포대는 이제 내고장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자랑이요, 관광지로서 그 모습이 가꾸어질 것이다.